

대통령의 하트뽕뽕과 체리따봉

태평로

배성규

정치 에디터



이재명 대통령의 텔레그램 사랑은 유별나다. 측근·의원·외부 인사 등과 거의 모든 소통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한다. 보고도 텔레로 받고 뉴스도 텔레로 접한다. 하루 수백 건 이상 메시지가 쏟아져도 빠지 않고 본다. 심지어 내용에 확인해 답을 준다. 거의 24시간 접속 중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소셜미디어(SNS)를 중시했다. 여의도 정치 기반이 약했던 탓에 SNS와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이슈와 민심 흐름을 파악하고 정치 전략을 짰다. SNS는 “목숨줄”이라고 했다. 술한 정치적 위기에도 살아남은 것은 국민과 직접 소통한 덕분이라는 것이다. 최초 팬클럽 ‘손가락 혁명군’도 휴대폰 SNS를 통해 모였다.

‘이재명 유튜브’는 정치인 최초로 구독자 100만명을 넘었다. 대선 유세 때나 계엄 사태 때도 차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다. 대통령실 공식 계정 외에 6개의 개인 SNS를 운영한다. 취임 후 한 달간 SNS에 올린 글이 80건을 넘는다. 전 정부보다 2배 이상 많다. 김민석 총리에 대한 업무 지시도 일반에 공개되는 ‘X’(옛 트위터)로 했다. 김총리도 X로 답했다.

우정아와 아트 스토리 [590]

당신의 눈을 신뢰할 수 있나요

‘빛의 거장’이라 불리는 미술가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1943~)의 ‘더 웨지’가 설치된 전시실은 눈을 뜨고 들어갔어도, 눈을 감은 것보다 어두웠다. 외부로부터의 빛이 거의 완전히 차단된 실내 벽면은 물론 바닥부터 천장까지 온통 검게 칠해졌기 때문이다. 손전등을 밝혀주는 안내인이 있긴 했다. 그래도 내 눈은 어떻게든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동공을 크게 확장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밝은 환경에 반응하던 원주체 포는 활동을 멈췄다. 대선 어둠에 민감한 간상세포가 서서히 꺼져났다. 밝은 빛에 의해 분해된 간상세포 속 광광 색소는 어두워지자 비로소 재합성되며

그러다 보니 여권 전체가 텔레로 통한다. 측근과 현역 의원, 주변·외부 인사들까지 앞다퉈 이 대통령에게 텔레를 보낸다. 대통령은 마음에 드는 메시지에 ‘하트(♡)’로 답한다. 빨간 하트가 톡톡 터진다고 해서 ‘하트뽕뽕’이다. 의원들 사이엔 “오늘 하트뽕뽕을 받았다”는 게 은근한 자랑이다. 하트를 받기 위한 숨은 경쟁도 벌어진다.

대통령이 각계와 직접 소통하는 건 긍정적인 일이다. 적절한 피드백도 좋다. 국민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좋은 제안을 수용하면 국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외부와 단절된 ‘구중궁궐’이나 편협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과도하면 문제가 생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SNS에 진심이었다. 심지어 텔레그램을 주고받고 보수 유튜브에 심취했다. 메시지가 만족스러우면 ‘체리따봉’을 보냈다. 체리 모양 캐릭터가 엄지를 치켜세우는 이 아이콘은 개인적 신임의 척도로 통했다. 체리따봉을 받은 이와 아닌 이로 나뉘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이나 한다’고 비난하는 메시지를 체리따봉과 함께 보낸 장면이 포착돼 파문이 일었다. 명대군씨 등과

민감도를 회복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는 ‘눈’이라는 내 감각기관의 존재감과 그 열된 움직임을 어떻게 생성하게 느낀 건 처음이었다.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뭔가를 보고 있다고 믿었는데도 말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눈은 아주 희미한 빛도 감지할 수 있도록 변화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을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다.

‘더 웨지’는 20분 동안 천천히 색을 바뀌며 빛의 평면을 공간에 투사하는 작품이다. 벽인 줄 알았던 곳은 허공이 되고, 틈인 줄 알았던 곳은 벽이 되었으며, 단단한 구조물처럼 보였던 부분은 다시 텅 빈 방이 되며 확장됐다.

주고받은 메시지도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SNS로 내 편 말과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다. 정치인·유튜버들은 대통령이 좋아할 메시지로 환심을 샀다. 은밀한 여론 내부 정보와 각종 비위·평판 제보도 쏟아졌다. 대통령은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여겼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보고받고 관여했다. 만기친람으로 흘렀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터넷 댓글 논란에 휘말렸다. 언론 보도를 비판하는 국정 브리핑에 잇달아 독려성 댓글을 달면서 불필요한 정치 공방이 벌어졌다. 공식 사회에선 총성 경쟁이 일어나고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댓글도 등장했다.

SNS는 많은 사람과 쉽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다. 하지만 끼리끼리 모이고 강성 목소리가 커진다. 잘못된 확증 편향이나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질 수 있다. 팬덤에 의한 극단 정치도 여기서 싹튼다. SNS 여론을 따르다 보면 포퓰리즘이나 쇼맨십으로 흐르기 쉽다. 과도한 텔레는 만기친람을 유발한다. 측근들 간 총성 경쟁도 생긴다.

이 대통령은 한때 보좌진으로부터 SNS 사용을 줄이자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돌발적 사고 위험과 부작용 때문일 것이다. SNS 소통은 필요하지만 ‘윤석열식 체리따봉’의 함정에 빠지지선 안 된다. 지금 장관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쟁점 법안 추진을 둘러싼 논란도 적잖다. 국민 여론을 폭넓게 듣고 반영해야 할 때다. 내 편만이 아닌 다른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광복 소통일 것이다.



제임스 터렐, 더 웨지, 2025년, LED, 가변 크기, 20분, 페이스갤러리.

어느 순간부터는 이 공간 전체가 실제인지, 아니면 빛이 만들어진 환영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영화 한 편을 5분짜리 영상으로 압축해 소비하는 시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보낸 20분은 뜻밖에도 충만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세상을 보고자 애쓰는 나 자신의 감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説

‘묻지 마 방탄’ 청문회, 권력 전제 장치 속속 무력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기 집 화장실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주당은 “인신공격과 모욕으로 후보자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엄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갑질을 제보한 보좌진을 “이상하다”고 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추행 의혹 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불렀던 일이 생각나는 행태다.

강 후보자는 갑질에 대해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갑질 의혹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됐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집 변기 수리는 “국회 보좌진이 아닌 가까운 지 역사무소 직원에게 부탁했던 것”이라고 했다. 지 역사무소 직원도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다. 강 후보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켰다는 것에 대해선 “음식을 차에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남독이 가지 않는 해명이다.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거나 각종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도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묻지 마 방탄’에만 나섰다. 청문회에서 ‘내란 정당 아웃, 발목 잡기 스톱’ 등의 피켓을 부착했다. 강 후보자 청문회와 계엄이 무슨 상관인가. 강 후보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하기로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청문회는 형식적으로 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위협’이라고 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지만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 한 명도 낙마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리멸렬한 상황이라 검증이 의미가 없게 됐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각종 민주주의 제도가 무력해지고 있다. 이러다 민주당은 아예 청문회를 없애려 할 수도 있다.

‘대선 포상 휴가’로 불린다는 대통령 특사단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영국, 인도에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과거 정부도 출범에 즈음해 특사를 보냈지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4국 위주였다. 이번에는 유럽, 인도·태평양까지 범위를 넓혀 14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규모도 규모지만 주요 4강 특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 특사가 먼저 출발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대통령 특사는 무게가 있고 적지 않은 국민 세금도 들어간다. 해당국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양국 현안에 전문성을 지녔거나 상 대국에서 정치적 비중을 인정할 만한 인사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 확정된 특사들이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대통령 선거 선대위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을 보좌할 특사단원도 거의 민주당 의원이다. 특사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대선 승리 포상 휴가”라고 말한다고 한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 특사만큼은 신중히 골라야 한다. 우리

경제와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이 어렵다. 관세, 방위비 분담, 주한 미군 재배치 등 모든 면에서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새 정부는 미국 측과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다. 정상 간 접촉은 취임 후 20분간 통화한 게 전부다.

대미 특사가 새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보내기도 전에 우리 내부에서 잡음이 나왔다. 김종인씨가 미국 특사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 내부가 들고일어났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에게 김씨 특사 파견에 반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다. 김 위원장이 미국을 잘 알고 양국 현안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데에도 논란이 있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그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대선 때 한 일이 뭐 있느냐’는 것일 것이다.

국익을 지키려면 트럼프 측과 직접 만나서 그쪽 생각을 제대로 듣고, 우리 입장에 잘 전달할 수 있는 특사가 필요하다. 친서 전 달 같은 단순한 일은 현지 대사가 해도 된다. 정치권뿐 아니라 관계·재계까지 아울러 트럼프 정부와 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바란다. 대미 특사마저 포상 휴가처럼 되어선 안 된다.

대통령들 친구 위한 자리 된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이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법제처는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기구로, 법령 심사 등 정부의 입법 활동을 조정한다.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된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하자 “윤석열의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비판했었다. 이완규 변호사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제기했던 징계 취소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았기 때문에, 그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하자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었다. 그랬던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 윤 전 대통령과 똑같이 사법시험 동기였다 자신을 변호한 사람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민주당은 내로남불이 체질화돼 이제는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사건 관련 변호인들을 국회와 행정부, 대통령실의 요직에 계속 기용해왔다. 작년 총

선 때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 4명이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실의 민정·공직기강 비서관과 행정관에 임명했고,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은 국정원 기조실장에 기용됐다. 국회, 행정부, 그리고 인신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를 포함하면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 12명이 국정 곳곳에 포진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변호인단에 포함된 분도 워낙 많다.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에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받아왔던 5개의 재판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사실상 중단됐지만, 퇴임 이후에는 재판 재개가 원칙이다.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 대통령실 곳곳에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을 배치한 것은 결국 대통령 방판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하다. 벌써 추가로 공직에 임명될 대통령 변호인들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정부 때는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의 과도한 공직 진출이 비판받았다면 이제는 대통령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과도하게 기용되고 있다. 시중에 ‘윤석열 사단’이 폐업하니 ‘이재명 로펌’이 개업했다는 말이 나도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숨은 뜻

미군 철수 없을 거라고? 주둔으로 이득 보는 쪽은 우리! 중국-북한 좋은 일, 왜 우리가 앞장?



▲ 전작권 환수는 미군 철수의 다른 이름이다. 대한민국 육군 K1E1 전차가 지난해 3월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에서 진행한 한미 연합 제방협동 도하훈련에서 부교를 건너고 있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더 이상 이런 훈련 모습은 볼 수 없게 된다. 중국과 북한이 박수 치고 좋아할 것이다. © 서성진 기자

‘패키지 딜’로 ‘역제안’?

《패키지 딜》에 《전작권》도 포함될 모양이다. 초절정 코미디다. 이재명 정권은 외교도 바센세일하듯 하려나 보다. 《역제안》이란 말을 알고나 쓰는 건지, 게임이론 《교섭》편에 나오는, 《거부권(veto power)》을 갖고 있는 한쪽이 다시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미군 나가라고? ... 이재명 정권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것?

뉴데일리
newdaily.co.kr

경기자는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제 자신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너 자신을 알라” “지피지기” 등의 말이 있는 이유다.

이론적으로 《역제안》은 《거부권》을 내포한다. 한국에 거부권이 있을까? 감정을 떠나 현실은 현실이다. 거부권이 없다. 안전 보장을 한미 동맹에 의지해온 게 그 증거다.

중국이 서해에 인공섬을 만들어도, 북한 《해배수》논란이 일어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한다. 거부권 있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나라가 동맹국 미국에 《역제안》을 한다고?

듣기 좋은 말만 번드르르

《군사주권》. 참 듣기 좋은 말이다. 한국은 ‘말’의 나라다. 인권, 평등, 민족, 공감, 공유, 복지 등. 선동은 《듣기 좋은 말》에서 시작된다. 스탈린도 히틀러도 《좋은 말》로 시작했다. 이른바 《국민 눈높이》를 파고들기 위해서다.

위선이다. 보릿고개 걱정하던 나라가 《경제강국》이 된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덕분이다. 《경제 = 체제 = 한미 동맹》이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 동맹 해체를 가져온다. 전작권을 레버리지 삼아 미국을 상대로 《역제안》을 하면, 《최후통첩(ultimatum)》이 날아올 수 있다. 《미군 철수》다.

역지사지 해보라. 한국이 천문학적 군사비를 쓰며 다른 나라를 돕고 있는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다던? 미군은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 나토에서도 미군이 작전권을 갖고 있고, 나토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다.

공파 좋아하다 망할라

경제학엔 《프리 라이딩(free riding)》 개념이 있다. 빈 좌석에 태워주는 호의다. 좋은 관계가 유지되려면, 휘발유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게 맞다. 《프리 라이더》 한국은 이제 술 직할 때가 됐다. 기름값 내기 싫으면 차도 얻어 타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헛똑똑이들은 《미군 철수》는 없을 거라고 아무렇게 믿고 있다. 미군의 한국 주둔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통해 더 큰 이득을 얻는 쪽은 한국이다. 미국엔 선택 문제지만, 한국엔 생존 문제다. 한국의 《전쟁 방지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 백성들 모두 《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확신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왜? 그런 땅은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안다.

미국 시각에서 일본열도는 태평양을 지키는 방파제다. 남한은 그 방파제 균열을 막는 보조 장치다. 트럼프가 북한

과 관계 개선에 나서면, 남한의 전략적 가치는 사그라진다.

나라 갖다 바치는 게 진짜 본심?

《전작권 환수》는 속임수다. 《전략》은 의사결정 함수(function)다. 상황 변화에 따른 행동 계획인 것이다. 중요한 건 함수의 《연속성》이다. 《전작권 환수》는 의사결정 함수에 구멍을 뚫는다. 연속성이 사라짐을 뜻한다. 불연속성은 예측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결정을 못 내리게 한다. 실행할 전략이 없어진다. 전략이 없는데 안보는 있을까? 경제는 있을까?

《전작권 환수》에 집착하는 이들은 그게 전략적 패착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자유 체제에 애착이 없을 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나라. 늘 외양간 고치느라 자원을 허비하는 나라. 정작 소는 사라졌는데, 내실이 없다는 뜻이다. 내실이 없는데 민생은 있을까?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이 기사는 인턴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7월 14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66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